

쫄깃·담백 '나주쌀' 뉴질랜드 인기 업고 호주 간다

뉴질랜드 농식품 수입업체 '더퍼스트인터내셔널' 나주 방문 운병태 시장과 수출 확대 논의...농식품 가공품도 수출 추진

올해 처음으로 뉴질랜드 수출길에 올랐던 나주 쌀 대표브랜드 '새청무'의 해외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쫄깃한 식감과 밥맛 좋은 쌀로 현지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를 넘어 올 하반기 호주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다.

나주시는 운병태 시장이 최근 나주를 방문한 뉴질랜드 현지 농식품 수입업체 '더퍼스트인터내셔널' (The First International) 잭 리(Jack Lee) 대표 등과 나주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확대 협력은 운 시장을 단장으로 한 나주시 농식품 시장개척단이 지난 5월 호주-뉴질랜드

현지 방문 당시 '나주쌀 1000t 수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운 시장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해 더퍼스트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호주 2개 업체, 뉴질랜드 2개 업체와 970만달러 규모 수출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새청무'는 현재까지 총 41t을 뉴질랜드로 수출된 가운데 뛰어난 밥맛 때문에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나주시는 여세를 몰아 오는 하반기 호주에 나주쌀 새청무 첫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 규모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잭 리 대표도 이번 나주 방문 과정에서 현지 소비

자 기호를 반영한 나주쌀 수출 포장 디자인 개발·제작을 함께 논의했다.

또 나주의 다양한 농수산물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동결건조 과일칩(굿푸드), 누룽지(대한식품), 김(완도물산), 누룽지스낵(유니원) 등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을 둘러보고 상담을 진행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새청무를 활용한 누룽지, 누룽지 스낵 시제품 제작에 나서기로 협의해 나주쌀 브랜드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올해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나주쌀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나주쌀을 비롯한 지역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과 함께 현지 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운병태(왼쪽 두번째) 나주시장이 지난 19일 나주시를 방문한 뉴질랜드 현지 농식품 수입업체 '더퍼스트 인터내셔널' (The First International) 잭 리(오른쪽 두번째) 등과 나주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나주산 쌀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조선시대 선비 체험

장성군, 29일 '선비축제' 청절당 옛 서원 공부 방식 팝페라 그룹 등 공연 관람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장성 필암서원에서 오는 29일 '하서와 함께 걷는 선비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국가유산청 '2024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된다.

장성군은 3년 연속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가고 싶은 세계유산, 머물고 싶은 필암서원'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필암서원 경내에서 펼쳐진다. 1부 체험 '필암서원 가는 길'과 2부 축제 '하서와 함께 걷다'로 구성된다.

'필암서원 가는 길'에서 참가자들은 선비 옷을 입고 청절당에서 옛 서원의 공부 방식을 체험한다. 경장각에서는 인종과 하서 김인후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죽도 목판 모형에 먹을 묻혀 화선지에 찍어 본다. 우동사에서는 제향 체험을 하고, 장판각에서는 보물찾기한다.

2부 '하서와 함께 걷다'에서는 본격적인 '선비 축제'가 시작된다.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 플루티스트 '나리', 퓨전 국악밴드 '올라'의 공연도 함께 즐긴다.

참가자들은 가족 친박 꾸미기 '선비의 날들이'를 하고, 장성 농산물로 구성된 간식 바구니를 받게 된다.



장성 필암서원에서 어린이 참가자들이 선비 체험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선비의 가방(에코백) 꾸미기'와 '선비의 놀이터'(활쏘기·대나무 물총 놀이), 농산물 직거래 등 즐길 거리도 다채롭다. '내가 아는 필암서원'을 주제로 한 자유 발언과 '인문학 토고' 등 필암서원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장성군은 올해 8차례에 걸쳐 '필암서원 가는 길'을 진행하고, 3차례 선비축제 '하서와 함께 걷

다'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열리는 선비축제에서는 인기 역사 강사인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장을 초청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필암서원을 무대로 펼쳐지게 될 올해 선비축제가 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낭만의 고장 강진 시골에서 2박3일

다음 달 20일~8월10일 '촌캉스 푸소 체험' 운영

강진군이 농촌에서 여름 방학·휴가를 즐길 수 있는 '촌캉스 푸소(FU-SO) 체험'을 다음 달 20일부터 8월10일까지 운영한다.

'촌캉스 푸소'는 여름 휴가 기간 농촌 체험인 '푸소'를 즐기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지난 2015년 5월 시작한 농촌 체험형 관광 '푸소'는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시티투어' '공무원 정령 푸소'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2박 3일간 푸소 참여 농가에서 숙박하며 농촌의 감성과 정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달 말까지 푸소 공식 누리집(fuso.or.kr)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1만6000원으로, 숙박과 4끼 식사가 포함된다.

예약자 모두 강진 대표 관광지인 가우도 짚트랙과 한국민화박물관 민화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후기를 누리집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푸소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촌캉스 푸소체험은 청정한 강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충분한 여유와 휴식을 선사할 것"이라며 "봄비지 않는 곳에서 알차고 즐거운 휴가를 원한다면 '촌캉스 푸소'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 농촌 체험형 관광 '푸소' 참가자들이 농가 체험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화순 결혼이민가족에 통역 지원

태국·몽골·우즈벡 가정에 행정 업무·학교 상담

화순에 사는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가족을 위한 통역 지원이 시행된다.

화순군은 소수국가 결혼이민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여성 3명과 통역 지원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민가족에게 행정 업무와 학교 상담 등 통역을 지원한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해 1월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를 공무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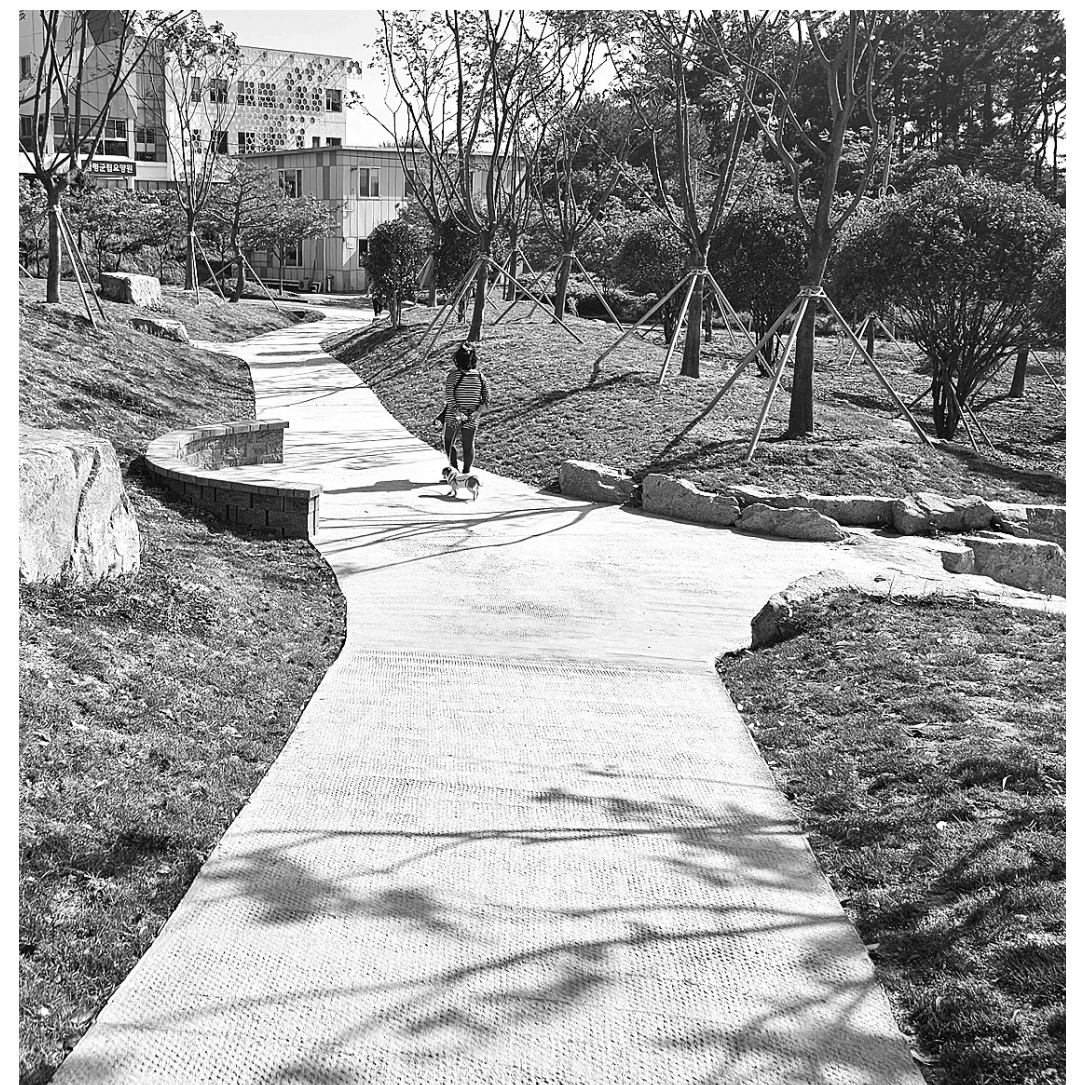
채용해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을 운영해왔다. 다문화 상담, 통·번역, 복지서비스 연계, 각종 시책 홍보 등을 제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수국가 출신 다문화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모든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바쁜 일상 잠시 두고 숲길 걸어요

함평군, 군립요양원 인근에 '생활환경숲' 조성



함평군은 최근 학교면 월산리 군립요양원 인근 군유지에 '생활환경숲(사진)'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생활환경숲은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억5000만원을 투입해 만들어졌다. 팽나무와 초화류를 심고 산책길과 퍼즐러(서양식 정자)를 설치했다.

함평군은 나무은행 사업을 통해 잔여 유휴 부지

에 기증목을 심어 생활환경숲과 연계한 숲 군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생활권에서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산림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나무와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 회진면에 주민어울림센터 개소

장흥군은 회진면에 240.3㎡(73평) 규모 주민어울림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김성 장흥군수와 주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진면 주민어울림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회진면 주민어울림센터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중앙경로당을 신축해 노인 여가문화와 복지 증진을 꾀했다.

사업비 9억1800만원을 들여 240.3㎡ 규모에 사무실, 다목적실, 식당 등을 갖췄다.

주민어울림센터에서는 경로 식당과 여가문화 행사 등이 운영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새롭게 개관하는 주민어울림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